

백세미 생산 산업화 움직임에 생산자들 강력 반발

- 홍 보 부 -

불법 백세미 생산 근절에 대한 생산자들과 정 부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백세미는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공공연히 여론철에 집중적으로 생산되어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더욱 불거져 나온 것은 지난해 하반기 경기침체 이후 일명 '가미술 치킨'이 소비를 불러올 때 일부 부화장을 중심으로 백세미가 집중적으로 생산되면서 어려워진 종계업계는 물론 육계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면서부터 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지난해 11월 농림부에 백세미는 엄연한 불법이며 비위생적이고 질병확산의 우려가 높다는 내용을 골자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규제 등의 제한 없이 운영되고 질병 전파 및 육계시장의 교란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백세미 생산이 학술적으로 모순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삼계탕 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이므로 건전한 산업화로 육성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본회 및 생산자들은 즉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하고 백세미를 이용한 산업화 방안은 어불성설이라 반박하고 나서는 한편, 백세미 생산이 근절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1차 조치로 백세미 생산 부화장 3곳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종계부화인들은 1월 25일 두 번째 청원서를 농림부에 제출하면서 기본 입장을 토대로 불법병아리 생산 근절을 위해 법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질병전

파의 위험이 있는 산란실용계보다 산란종계로 백세미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백세미는 수요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닭고기 상품의 일종이므로 이에 대한 생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방역관리를 강화시키고 생산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백세미 생산용 종계를 보급해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본회 종계분과위원회 및 종계부화산업 발전협의회, PS 친목회에서는 불법 백세미 생산 근절대책을 거듭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3월 16일에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한편, 2월 26일부터 5대 농업전문지 신문(축산신문 등) 등에 '여론을 무시한 채 산업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백세미의 불법 생산행위를 제도 안으로 흡수하려는 농림부의 태도에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이 성명서에서는 농림부에서 백세미 생산의 양성화를 추진할 경우 산란실용계가 아닌 산란종계나 준용계 종계만에서의 생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재차 강조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론에 입각하여 농림부에서 입장을 선회하느냐 아니면 본래의 취지대로 불법 병아리(백세미) 생산 양성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진통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억제 차원에서 종계업계와 육계업계의 최대 관심사항이어서 합리적인 방안 강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여지가 높다.